

조사보고서

2023-1

2023년 1/4분기

기업경기전망조사 분석결과

2023. 1



I. 조사의 개요

1. 조사목적

- ◆ 여수지역 제조업체의 경기전망을 조사·분석하여 역내 기업의 경영 활동에 기초자료로 제공하고, 정부 및 시·도 지자체의 경기 대책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제공하는데 있음.

2. 조사기간, 조사방법

- ◆ 2022년 4/4분기(10, 11, 12월) : 실적기간
- ◆ 2023년 1/4분기(1, 2, 3월) : 전망기간
- ◆ 조사기간 : 2022. 12. 19. ~ 2022. 12. 30. (휴일제외 10일)
- ◆ 조사방법 : 설문지 조사

3. 조사대상

- ◆ 여수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상시 종업원 15인 이상의 제조업체 186개사
- ◆ 응답개수 : 66개 (설문지 회수율 : 35.5%)

4. 조사내용

- ◆ 전반적인 체감경기(경기실적 및 전망)
- ◆ 경기 변화에 따른 기업 부담과 대책 상황 등

5. 집계·분석

- ◆ 회수된 조사표를 각 항목별로 집계·처리

6. 기업경기 실사지수(BSI)의 작성방법

- ◆ 경기조사 및 항목별 평가 조사에 대해서는 조사대상 기간의 실적과 예측을 각각 전 분기 및 전년 동기와 대비하여 호전(상승, 증가), 악화(하락, 감소)로 표시하게 한 후 이를 지수화 하였음.

기업 경기 실사지수(BSI)는 다음 산식에 의해서 작성하였음.

$$\text{기업경기실사지수(BSI)} = \frac{\text{증가(+)\표시업체 수} - \text{감소(-)\표시업체 수}}{\text{총 유효 응답 업체 수}} \times 100 + 100$$

※ BSI = Business Survey Index (0 ≤ BSI ≤ 200)

- ◆ 따라서 BSI의 기준치는 100이며, 100을 초과할 때는 호전(상승, 증가)으로 표시한 업체가 악화(하락, 감소)로 표시한 업체보다 많음을 나타내고, 100 미만일 때는 그 반대를 나타냄.

II. 2023년 1/4분기 기업경기 전망

1. 종합전망

가. 개황

- ◆ 여수지역에 소재한 186개 제조업체를 대상(설문지 회수 : 66개, 회수율 : 35.5%)으로 2023년도 1/4분기 기업경기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, 기업경기전망지수(BSI)는 '89.4' 로 조사되었음.
- ◆ 이중, 석유화학 연관업종(n=36개)만을 대상으로 한 경기전망지수(BSI)는 '88.9' 임

나. 항목별 경기전망 지수

【종합 (N =66)】

구 분 항 목	전체	
	2022년 4/4분기 실적 (전 분기 대비)	2023년 1/4분기 전망 (전 분기 대비)
체감 경기	77.3	89.4
매출액	80.3	86.4
영업이익	66.7	81.8
설비투자	84.8	93.9
공급망안정성	74.2	87.9
공장가동여건	81.8	87.9

【석유화학 연관업종(N=36)】

구 분	항 목	전체	
		2022년 4/4분기 실적 (전 분기 대비)	2023년 1/4분기 전망 (전 분기 대비)
	체감 경기	77.8	88.9
	매출액	77.8	86.1
	영업이익	66.7	83.3
	설비투자	91.7	91.7
	공급망안정성	83.3	80.6
	공장가동여건	88.9	77.8

【일반업종(N=30)】

구 분	항 목	전체	
		2022년 4/4분기 실적 (전 분기 대비)	2023년 1/4분기 전망 (전 분기 대비)
	체감 경기	76.7	90.0
	매출액	83.3	86.7
	영업이익	66.7	80.0
	설비투자	76.7	96.7
	공급망안정성	63.3	96.7
	공장가동여건	73.3	100.0

2. 설문 결과 분석

- ◆ 2023년 1/4분기의 여수지역 경기전망지수(BSI, n=66)는 ‘89.4’로 조사되었다. 응답 개수 : 66개 (설문지 회수율 : 35.5%)
- ◆ 이는 기업경기 체감지수 기준 값(前분기 대비 다음분기의 기업경기 체감이 동일함을 의미하는 기준 값)인 100보다는 작은 값으로 “부정적”인 결과다.
- ◆ 2023년 1/4분기 체감경기 추이는 지난분기에 이어 상승세를 유지했다.
 - 89.4(2019년 3분기)→ 70.6(2019년 4분기)→ 94.1(2020년 1분기)→ 73.2(2020년 2분기)→ 58.0(2020년 3분기)→ 44.1(2020년 4분기)→ 65.2(2021년 1분기)→ 91.5(2021년 2분기)→ 83.8(2021년 3분기)→ 89.3(2021년 4분기)→ 88.4(2022년 1분기)→ 97.1(2022년 2분기)→ 62.3(2022년 3분기)→ 73.8(2022년 4분기)→ 89.4(2023년 1분기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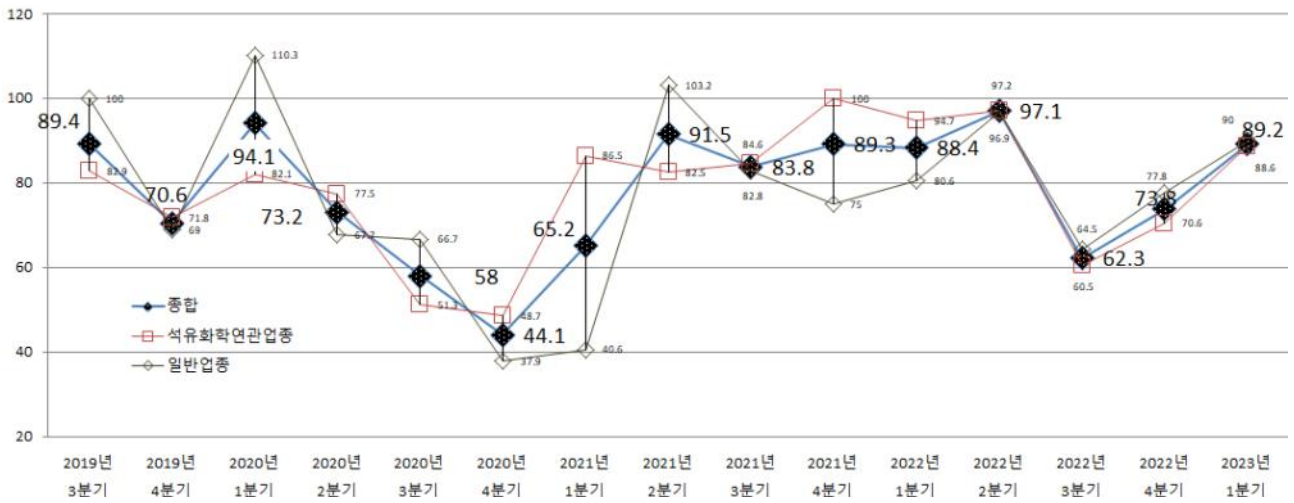


그림 BSI 추이 (2019년 3/4분기 ~ 2023년 1/4분기)

◆ 지난 해 3분기 이후 기업경기전망지수(BSI)는 상승하였음. 지난해 2분기를 지나면서 글로벌 경기침체와 고환율, 고금리, 고물가 등 3고(高)현상과 원자재 가격 상승, 물류비·인건비 상승 등으로 급격히 하락한 기업경기전망지수(BSI)가 4분기를 기점으로 다시 상승하였음.(73.8 → 89.4)

◆ 구체적으로 석유화학 연관업종의 경기전망지수는 지난 분기대비 18.3 상승, 일반제조 업종은 지난 분기대비 12.2 상승하면서 업종에 구분 없이 상승하였는데, 이는 러시아-우크라이나 사태로 점화된 에너지 및 원재료 가격 상승과 이로 인한 인플레이션 영향에도 불구하고, 장기간 사회적 거리두기가 추진되어 경제활동이 급격히 위축됐다가 억눌렸던 수요시장이 급속히 살아나는 일종의 펜트-업¹⁾ 효과와 전방산업의 수요개선에 대한 기대심리가 함께 반영되어 석유화학 및 일반 업종 모두에서 100을 넘지 못한 수준에서 지난 조사 대비 상승했다고 분석할 수 있음.

- 석유화학 연관업종 : 70.6(22년 4/4분기)→88.9(23년 1/4분기), 18.3 **상승**

- 일반제조 업종 : 77.8(22년 4/4분기)→90.0(23년 1/4분기), 12.2 **상승**

◆ 석유화학 연관업종의 경우, 원/달러 약세로 수출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, 달러를 제외한 여타 주요국의 통화 역시

1) 펜트업 효과(Pent-up effect): 억눌렸던 수요가 급속도로 살아나는 현상으로, 보통 외부 요인으로 인해 수요가 억제되었다가 그 요인이 해소되면서 수요가 분출하는 현상

대부분 약세로 나타남에 따라 수출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 개선에도움이 되지 않아 100을 넘는 경기전망은 나오지 못했다고 분석하였고(70.6 → 88.9)

- ◆ 일반제조업종의 경우에는, 외식비 및 서비스 물가상승세, 공공요금 인상 등 경기불황 우려감에도 불구하고,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코로나 이후에 나타나는 펜트-업 효과와 함께, 여행 및 외식업 등이 활력을 찾는 모습을 경험하면서 향후 가계 구매력이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더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분석함.(77.8 → 90.0)
- ◆ 2023년도 1사분기 경기전망지수가 지난 분기 대비 증가하는 추세로 조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00이하의 “부정적”으로 조사된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, 향후 코로나 펜트-업 효과가 약해지고, 원재료 가격 인상 등으로 인한 물가상승과 이로 인해 위축된 소비시장이 경기불황으로 이어지는 일종의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으로 이어져 우리지역 제조업의 경영 환경이 장기간 어려운 환경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할 수 있음.
- ◆ 덧붙여 향후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고, 에너지 및 원재료 등의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면 그 만큼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약화되어 석유화학 업계를 포함한 수출기업의 투자는 축소될 가능성도 높아 지역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음.

【경기전망조사 세부 항목 조사결과】

- ◆ 「귀사의 올해 매출액은 연초 목표 대비 각각 어떤 수준일 것으로 예상하십니까?」라는 질문에 “소폭 미달(39.4%)” > “연간목표 달성(28.8%)” > “소폭 초과달성(18.2%)” > “크게 미달(12.1%)” > “크게 초과달성(1.5%)” 순으로 조사되었다.
- ◆ 「귀사의 올해 영업이익은 연초 목표 대비 각각 어떤 수준일 것으로 예상하십니까?」라는 질문에 “소폭 미달(33.3%)” > “연간목표 달성(30.3%)” > “크게 미달(18.2%)” > “소폭 초과달성(16.7%)” > “크게 초과달성(1.5%)” 순으로 조사되었다.

- ◆ 「귀사의 경영실적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국내외 요인은 무엇이었습니까?」라는 질문에는 “원자재가격(47.0%)” > “내수시장 경기(34.8%)” > “수출시장 경기(9.1%)” > “고금리 상황(4.5%)” = “기타(4.5%)” 순으로 조사되었다.
- ◆ 「귀사는 한국경제의 내년 성장률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?」라는 질문에는 “1.0% ~ 1.5%(40.9%)” > “0.5% ~ 1.0%(25.8%)” > “1.5% ~ 2.0%(21.2%)” > “0% 미만(6.1%)” = “0% ~ 0.5%(6.1%)” 순으로 조사되었다.
- ◆ 「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귀사의 2023년 매출 전망은 올해와 비교해 어떤 것으로 생각하십니까?」의 질문에 “금년 수준(36.4%)” > “-10% ~ 0%(21.2%)” = “0% ~ 10%(21.2%)” > “-20% ~ -10%(10.6%)” > “-30% 미만(3.0%)” = “-30% ~ -20%(3.0%)” = “10% ~ 20%(3.0%)” > “20% ~ 30%(1.5%)” 순으로 조사되었다.
- ◆ 「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귀사의 2023년 수출 전망은 올해와 비교해 어떤 것으로 생각하십니까?」의 질문에 “금년 수준(63.6%)” > “0% ~ 10%(13.6%)” > “-10% ~ 0%(12.1%)” > “-20% ~ -10%(4.5%)” > “-30% 미만(3.1%)” > “-30% ~ -20%(1.5%)” = “10% ~ 20%(1.5%)” 순으로 조사되었다.
- ◆ 「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귀사의 2023년 내수 전망은 올해와 비교해 어떤 것으로 생각하십니까?」의 질문에 “금년 수준(48.5%)” > “0% ~ 10%(19.7%)” > “-10% ~ 0%(18.2%)” > “-20% ~ -10%(7.6%)” > “-30% 미만(3.0%)” > “-30% ~ -20%(1.5%)” = “20% ~ 30%(1.5%)” 순으로 조사되었다.
- ◆ 「2023년 투자계획은 2022년과 비교해 어떻습니까?」의 질문에 “올해와 동일수준(66.7%)” > “올해보다 감소(24.2%)” > “올해보다 증가(9.1%)” 순으로 조사되었다.
- ◆ 「2023년 한국경제를 위협하는 리스크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?」의 질문에 “고물가·원자재가 지속(39.0%)” > “고금리

지속(22.0%)” > “내수경기 침체(15.3%)” > “원부자재 수급 불안(8.5%)” > “수출둔화 장기화(6.8%)” = “고환율 장기화(6.8%)” > “지정학적 리스크(0.8%)” = “노사 갈등(0.8%)” 순으로 조사되었다.

- ◆ 「경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정부가 역점을 뒀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?」의 질문에 “경기부양을 위한 금리정책(28.9%)” > “자금조달시장 경색 완화(15.7%)” = “규제혁신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(15.7%)” > “환율 등 외환시장 안정(14.9%)” > “공급망 안정화(14.0%)” > “수출 및 기업활동 지원(9.9%)” > “지정학 리스크 완화 경제외교(0.8%)” 순으로 조사되었다.